

민주, 내년 확장성 재정...사상 첫 '600조 슈퍼예산' 전망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등 필요 재정건전성 고려 당정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연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편성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답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잠깐씩 종식되리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이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치 자유와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지혜

를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나선 배경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타격 우려가 깔려 있다. 수도권 등지의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시민들 사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완충하고, 경제 회복의 기조를 이어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올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으로 내년 초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면서 "피

해 회복에 충분한 진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7.5% 정도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예산안 초안을 다음 오는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 총지출 증가율을 작년보다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

기됨에 따라 당정간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정부가 7.5%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8조 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8월 안에 의결해서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해서 당정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는 예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당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 9월 말 정도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반발'에 국민의힘 토론회 취소...이준석 타격

25일 비전 발표회
26일 선관위 출범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오는 18일 대선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25일 예정됐던 토론회 역시 비전발표회로 대체로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회 개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상으로도 치달던 상황에서 통합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비공개회의에서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18·25일 예정됐던 토론회를 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비공개 전황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승호 대변인은 "토론회 개최를 빼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그대로 추진됐다고 보면 된다"며 "토론회의 경우엔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비전발표회 개최)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토론회 취소 배경에 대해선 "당내에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 이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당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지도부 구성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길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윤 전 총장과 같은 당내 국민의원 합당 무산으로 인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이 작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권 도전 공식 선언

20일 광주전남 찾아 표심 공략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비대면 출마회견을 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면서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며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더미로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면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헌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는 20일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광주시장·전남도당 당원과 간담회를 한다. 지역 기자단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 이재명·정세균 지지 선언 잇따라

광주와 전남에서 대권 주자들에게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생태계의 위기를 제대로 꿰뚫고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공의 안전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용적이며 혁신적인 정책들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했다"며 "문화예술인들의 기본 소득과 사회보장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자들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후보는 경제 대통령 리더십, 공정 대통령 리더십, 민생 대통령 리더십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로 국부 창출,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공정 회복, 민생 회복을 실현하고 특권과 반칙을 강력하게 척결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강하게 해소할 유일한 정권 재창출 후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세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유일한 민주 정통 후보"라며 "중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 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을 해낼 유일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김동연에 손짓...제3지대 파이 키우기

중도 확장 국민의힘과 차별화
대선 박빙팬 캐스팅보트 역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 행보를 선언한 뒤 중도 공약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안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예고한 만큼, 중도 확장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담론'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며 제3지대 확장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지대 확장에 함께 할 파트너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론된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김 전 부총리와 접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내년 대선에서 양자 구도가 형성돼 박빙의 선거에서 흘러갈 경우 제3지대가 '캐스팅보트'로서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선 정국에서는 1위 당이 박빙의 선거를 치

르는 구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나타나는 후보는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과 결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난 10년간 제3지대에서 중도 지지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리라고 그렇게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태도로 인해 제1야당에 실망한 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안철수 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40%가 양당 정치에 회의를 느낀 중도세력이라며 "과거 적폐와 신적폐 세력과 차별화된 제3의 정당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그동안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공언해 온 만큼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에 조만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당 추진 때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 독자 후보로 나설 경우 당원 개성이 불거피한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를 배려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당원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입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